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진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개최

7월12일(내일) 오전 10시, 국제회의실에서

교회교육의 현실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주최하여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기독교 교육 학술심포지움이 내일(12일) 오전 10시부터 우리교회 국제회의실(선교관 5층)에서 열린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심포지움은 『교회교육의 현실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전체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거의 교회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 원인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교회교육의 모습, 즉 교회교육을 뒷받침할 교육철학과 신학의 부재,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비능률적인 교육행정과 우리의 교육환경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평가와 진단 위에 미래의 교회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이에 따른 교회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심포지움의 목적이다.

오전 10시 개회예배(설교: 당회장 신성중 목사)를 시작으로 오후 4시30분까지 진

행될 심포지움은 국내 전 기독교 교육학계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논평 등으로 진행되는데 주선에(장신대), 이만열(숙명여대), 오인택(연세대), 정웅섭(한신대), 정일웅(총신대), 박상진(장신대)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선다.

국제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는 본 심포지움에는 전국 교회 교회교육 지도자 중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자에게 당일 점심식사가 제공되고 강의안을 배부할 예정이다.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주제 및 강사 :

10:00-10:30	개회예배 (설교:신성중 목사)
10:30-12:00	논제1/ 초기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와 계승방안 발제: 주선애 교수(장신대) 논평:이만열 교수(숙명여대)
12:00-13:00	점심시간
13:00-14:30	논제2/교회교육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제시 발제: 오인택 교수(연세대) 논평: 정웅섭 교수(한신대)
14:30-15:00	휴식시간
15:00-16:30	논제3/ 교회학교 교육지도자 양성론 발제: 정일웅 교수(총신대) 논평: 박상진 교수(장신대)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목사

- 7월 12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원로회 임시총회 설교(충현교회)
- 7월 13일 원로 목사회(대림교회)
- 7월 15, 16일 청년부 수련회 설교(충현기도원)

2. 신성중 목사

- 7월 12일 교회설립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개회예배 설교(충현교회 국제회의실)
- 7월 15일 장로 수련회 설교(동해교회)
- 7월 17일 청년부 수련회 설교(충현기도원)

‘순교보’ 영화 및 염광노래 선교단 초청

- 초등 5부 여름성경학교에서 -

교회학교 초등5부(부장 윤성철 장로)는 여름성경학교 기간(7월19~21일) 동안 특별 행사 계획을 마련하고 일반 학부모와 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경학교 첫날 오전 11시 20분에 갈릴리움에서 한국초대교회 이기풍 목사 일대기를 그린 ‘순교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둘째 날인 20일 오전 11시 20분에는 갈릴리움에서 염광노래 선교단을 초청하여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찬양의 의미를 새롭게 할 예정이다. 초등 5부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공개해 참여하기를 원하는 일반 교우들도 함께 하도록 했다.

를 거쳐, 오늘날 2만 명의 성도가 아름답고 웅장한 새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 전도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깊은 뜻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명령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40년 광야길을 걷게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현교회는 과연 합격점을 주셨는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신 8:12-14)” 하시는 하나님의 걱정은 기우이실까?

충현 40주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져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결심하는, 가나안 입성의 원년이 되기를 다짐하고 싶다.

신성중 목사'93 뉴욕전도집회 마치고 귀국

미주선교 찬양단도 모든 일정 마치고

지난 6월 26일 김포공항을 떠나 미주 순회 연주 및 카네기홀 성가합창제에 출연한 미주선교찬양대가 2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10일 무사히 귀국했다.

미주선교찬양단은 6월 27일 저녁 카네기홀의 성가합창제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7월 1일에는 '93 대 뉴욕전도대회(일명, 할렐루야대회, 주강사 신성중 목사)에 참석하여 찬양을 하고, 7월 4일에는 무디교회에서, 7월 7일(수)에는 로스앤젤레스 수정교회 등에서 찬양을 하기도 했다.

2주간의 일정 중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대원과 청중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다. 또한 우리 교회 찬양대의 최초의 해외연주여행이었기에 이

번에 얻은 경험들이 앞으로 찬양대 발전과 더 나은 도약을 위해 큰 보탬이 될 것이다.

2주간 일정 중 교회에서는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공식예배나 집회시간에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집회를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와 찬양단을 위해 기도함으로 귀한 사역을 도왔다.

한편 7월 1일~4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주최하여 매년 한번씩 열리는 대뉴욕전도대회(일명, 할렐루야대회)에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 대회를 인도한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모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금번 대회에는 매 집회마다 1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이라 최대의 성황을 이루었다.

평신도 선교사 파송예배

김철영 집사와 고은빈 선생

선교연구원에서 훈련받고 평신도선교사로 나가기에 원하는 김철영 집사와 고은빈 선생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키로 결정하고 오늘(7월11) 저녁 파송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김철영 집사(45세)는 일본 오오사카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업인 가구제작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할 예정이고 고은빈 선생(29세, 여)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현지 선교사들과 팀 사역을 하며 선교행정 및 맞사이 원주인을 위한 선교사역을 할 예정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신 8:2)”

수 천년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마치 지금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충현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명령인 것처럼 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1953년 18명이 모인 첫 예배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시대와 구성전 시대

충현 40년의 의미

가나안 입성의 원년



하 대 선
(정로·선교위원회 위원장)

이번 주에 열리는 여름계절학교

· 이미 시작된 여름 계절학교 금주에는 다음의 부서가 실시합니다.
다함께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청년부	7월 15일~17일	충현기도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다
장년부	7월 17일	갈릴리움	시련을 넘어서 이긴다
사랑부	7월 17일	사랑부실	찬송하며 가는 나라

1. 시편 70편의 저작 환경

시편 70편은 다윗임금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70편을 지을 때의 환경은 다윗이 임금이 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고 나이가 많아진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제일 잘 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셋째인 압살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누이동생 다말의 일로 몇 년 후에 자기의 큰 형 압논을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다윗임금은 죽은 압논을 잊어버렸는데 비록 잘못했지만 도망간 아들 압살롬은 잊지 못하고 간절히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임금의 이런 마음을 알고 다윗임금에게 진언하여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니 큰 아들 생각이 울컥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진정한 다음에 보자.' 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임금의 마음이 풀려서 압살롬을 불러 입을 맞추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효자노릇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계획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딱합니다.

압살롬은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해서 많은 자기의 부하를 지방마다 키워놓았습니다. 드디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임금은 마음 놓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여러 지방에 숨겨 놓았던 훈련시킨 군인을 다 모았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다윗임금의 모사 아히도벨을 꾀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명분으로 헤브론으로 가서는 "압살롬 대왕 만세!"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다윗임금은 신하 몇 사람을 거느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떠난 다윗임금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반란자들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임금은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모든 잘못은 내게 있나이다. 용서해주시고 해결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이 시편 70편은 도망가면서 급히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에 죽을지 내일밤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것이 시편 70편입니다.

2. 급속한 구원 요청(1-3절)

1절에 '속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급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세상에는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임금은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 안 버리시면 나는 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살겠다는 믿음으로 "속히 도와주세요, 속히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많은데 죄악을 만드는 것이 악마입니다. 악마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려고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다윗임금은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려는 악마가 하는 일이라고 느껴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아하 아하 하는 무리들은 '놀기도 잘 논다. 다윗왕이 유명하고 머리가 좋고 정치를 잘한다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꾸며 놓은 것도 모르는 바보들이야. 하하하' 하고 비웃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의롭게 사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다윗임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임금은 '저 하하 웃는 무리들로 하여금 한 번은 자기들의 계획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는 날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임금은 자기가 원수 갚을 생각은 꿈에도 안합니다. 원수들이 소리없이 도망가는 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3. 광대하신 하나님(4절)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에 관한 기도입니다. 의인이 망하면 국민들이 타락하겠사오니 국민들

충현장단



급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 70:1-5)



김 창 인

<원로목사>

이 타락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의인이 망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악한 자가 세력을 잡으면 후손들이 망하겠사오니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지 못하도록 일을 막아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신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임금은 이처럼 도망가면서도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진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사 가운데 가장 으뜸 모사인 아히도벨이 지금 반역자의 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군인들을 셀 수없이 많이 키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영감, 도망가는 영감을 따라가는 무리들 얼마나 충성입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 저렇게 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있던 마음이 온전해져서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고 만민에게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로다. 너희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라. 우리가 이렇게 체험했다 하며 하나님의 구원, 권세를 오는 온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자기

가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자기를 따라오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상할까봐 그들을 구원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게 하셔서 나라와 후손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참 신자의 기도입니다.

4. 다윗의 겸손한 기도

마지막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도망가니 가난해졌습니다. 군인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는 말은 겸손한 말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사오니 나 죽습니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사오니 하늘 창고를 여시고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창고문을 열어주시면 넉넉할 줄을 믿었습니다.

다.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위급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급한 기도를 급히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 다윗왕이 이 기도를 드린 그날 밤에 아히도벨이 놀라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입니다. 후세의 계락을 들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락을 파하고 후세의 계락을 받아들입니다. 그말을 들은 아히도벨은 '이젠 죽었구나. 기회를 놓쳤구나.' 하고 도망가서 자기가 목을 매고 자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임금의 시편 70편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깨달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몸도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해줍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임금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하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복을 받고 내 육신이 복을 받고 내 불의한 사업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가 뒤를 따라갑니다. 자기가 앞서지 않습니다. 욕심없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임금의 참 사랑을 가진 낙심을 모르는 신앙, 원망을 모르는 신앙, 저주가 없는 신앙, 급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신앙을 본받읍시다. 급할 때는 매달리는 급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민족의 장래, 나 개인의 기도를 하여 욕심없는 깨끗한 기도를 간절히 드림으로 개인문제, 가정문제, 사회문제, 나라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임금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와서 평양, 신의주까지 돌아가게 되기를 높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저울

글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인가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여왔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시간이다. 둘 다 약속과 관계를 가진다. 인간의 평가는 그가 한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때에는 모종의 약속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급한 것만 모면하려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돌려주어야 할 날짜나 약속을 어기고 만다. 다음은 시간의 약속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심오한 이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사귀는 것은 언제인가는 더 큰 배신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돈이나 다른 약속을 지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글 / 신성종 목사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위해서(for)”가 아니라
“있기(being)” 때문에

이 준 우

(전도사, 에바다부 부지도)



충 현교회에서 농아인들을 섬겼지도 어느덧 4년이 다 되어간다. 내가 충현교회 에바다부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김 성운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인 농아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수화를 사용해서 농아인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시작한 이 일을 주님께서는 평생의 사역으로 내게 맡겨 주셨다. 아들을 섬길 만한 자격과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시고 신학공부를 시켜주시고 농아인 전교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신다.

고등학교 다닐 때와 충신대 재학시절, 나의 소원은 다른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공부를 도서관에서 마음껏 해보는 것이었다.

장애인인 아버지, 그리고 여러 번 거듭된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 등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홀륭한 목회자'가 되고 말겠다는 희망 하나가 나를 버티게 해주던 때였다. 새벽에는 주로 신문배달이나 세차를 하였다. 방학때는 독서실 총무나 막노동 같은 일을 주로 하였다. 내게는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할 마음의 여유나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했다. 틈틈히 짬나는 대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항상 고민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예배드리고 은혜받을 때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었지만 막상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는 불평과 짜증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내가 농아인들을 만난 것이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것이라고 여기고 만났던 그들로부터 오히려 그들을 만남으로 엄청난게 성숙되는 나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악 조건들 속에서도 신앙을 가진 농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 듣지 못하고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들은 온 몸으로, 손짓으로, 표정으로, 있는 맘을 다 바쳐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었다. 가난하였지만 가난함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을 만나면서 나는 새 힘과 용기를 얻었고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다. 그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돌보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동역자이자 형제자매요 같은 천국백성인 것이다.

이렇게 농아인을 만나면서 나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장애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언어지는 경험의 문제이다.** 내가 그들을 만났기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격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에바다부에 있는 것은 농아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농아인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농아인들을 맡겨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나는 기도한다. 첫째는 우리 에바다부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기를…… 둘째는 홀륭한 농아인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통일된 조국의 저 복된 땅에서 농아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한 나는 생각한다. 우리 에바다부의 농아인들이 비록 몇명 안되

지만 어쩌면 이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충현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바로 되도록 하는 소금이 아닐까? 라고

한 영혼의 농아인이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고 방황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우리 충현교회가 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고 성장하는 기적의 시작이라 말하고 싶다.

나는 한 사람의 농아인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낀다. 우리 교회와 같이 큰 교회는 자칫 성도 수가 너무 많아 성도 귀한 줄(?) 모르기 쉬운 것 같다. 우리 에바다부는 한 영혼이 그렇게 아쉽고 귀하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에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천국백성이 되는 역사가 힘있게 계속될 때 많은 일반 성도들이 우리도 “힘을 내자!”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던 성도들도 농아인들의 뜨거운 신앙을 보며 건전한 자극을 받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리라 기대한다.

나는 충현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고, 농아인들에게 선교하고 교육하며 통역해주며 섬기는 일에 푹 빠져있다.

특별히 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농아인들에게 보내주셨고, 무엇보다도 귀한 복음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이 엄청난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욱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조용히 이 섬김의 사역을 평생동안 해 나가고자 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수 없으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시편 37편 23, 24)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악 조건들 속에서도

신앙을 가진 농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

듣지 못하고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들은 온 몸으로, 손짓으로, 표정으로, 있는 맘을 다 바쳐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었다.

가난하였지만 가난함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을 만나면서 나는 새 힘과 용기를 얻었고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용육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육이에요. 구로 국민학교 3학년이구요. 우리는 별집에서 살아요. 별집에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벽에 1, 2, 3, 4, 5…… 번호가 붙어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구로2동 술집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아빠는 청호 감호소라는데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부활절날 교회에서 쥘 계란 두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쟁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물어봐서 누워 계시면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홍 구원만 받아서 사내'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 을 올려 배려하는데, 구원만 말고 50만원만 내

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래도 믿겠다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바람이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 드려서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 주셨어요.

5월 5일 1등상을 탄 날 땃방에 손님이 오셨어요. 글짓기 대회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할아버지께 동화작가 선생님께 물어 물어 우리 집세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주고 가신 할아버지가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그만 잠깐 놀랐습니다. 동화책 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툭 떨어지는데 아내였어요? 퍼보니 저는 쟁전 처음보는 수표였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만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예

수님이 주신 거예요'라고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 채셨는지 '애, 용육아!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말날에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주말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얹게 하시고
나까지 갑니다.
대매매에 가서서 얼마나 우쭐했는지
두 눈이 술방울만
해 갖고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게 아니구 50만원을 주셨구나' 큰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말날에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주말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얹게 하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대매매에 가서서 얼마나 우쭐했는지 두 눈에 술방울만 해 갖고 집에 오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우쭐할때 또 같이 죽자고 하시는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는데 '용육아,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은 꼭 찾아드리겠다구. 용? 난 못 죽어 인제' 하셨습니다. 엄마가 안 죽었다는 맘을 먹으신게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앗호!' 소리를 지를 뻔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매달 커서 꼭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꼭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은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육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육이 올림

토막소식

- ◆ 가브리엘 찬양대의 미혼자 모임이 7월12일(월) 이지연 대원의 집에서 모인다. 또한 미혼자 수련회가 8월2일~4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 ◆ 영아부의 예배가 3부제가 되었는데 영아부에서는 2부 10시 예배에 많이 참석할 것을 바라고 있다.
- ◆ 유치부는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전체점검 및 교사 기도회를 7월18일(주일) IV부 예배후 유치부실에서 갖는다.
- ◆ 초등1부는 학습평가를 통하여 그동안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초등3부는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14일(수) 수요일 예배후 교사실에서 준비기도회로 모인다. 또한 초등3부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전 교사가 매일 잠자기전 10분간 기도하는 운동을 펴고 있다.
- ◆ 초등4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생 중 지방에 내려가서 지내는 경우 그 지방의 교회에 참석하고 주보를 가져오면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 초등5부는 7월18일(주일)에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전교사가 충현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회를 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계획이다.
- ◆ 초등6부는 7월 19,20일 이틀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충현기도원에서 개교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숙식을 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 중등2부의 김양자 선생은 수도노회가 주최하는 교사 강습회에서 모범교사로 선출되었다.
- ◆ 중등3부는 상반기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 결과 1등에 양운선, 2등 이민욱, 3등 이해만, 조충현, 5등 김이삭, 6등 김유 등이 입상했다. 한편 매주일 오후 1시에 영어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 ◆ 대학부는 여름수련회를 끝내고 제자훈련 각급반이 시작된다. 또한 일꾼수련회가 8월 20, 21일 있을 예정이고 9월 19일에는 '예수 사랑 가을잔치'를 할 예정이다.
- ◆ 청년부는 새로운 통합 청년부의 면려회 구성을 위해 7월18일 면려회 총회를 갖기로 하고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 ◆ 장년1부는 7월17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는 장년1부 지도인 권성수 목사, 주제는 '시련을 넘어서 이긴다' (벧전 1:7)이다.
- ◆ 사랑부는 7월1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관 1층 사랑부실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한다. '찬송하며 가는 나라'라는 주제하에 모이는데 예상인원은 학생 160명, 교사 80명, 학부모 10명이다. 또한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교사특강과 교사철야 기도회를 7월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교육관 107호실에서 갖는다.
- ◆ 소망부는 7월25일, 93년 1월 ~ 6월까지 소망부 주보에 실린 설교내용을 중심으로 성경퀴즈대회를 할 예정이다.

경퀴즈대회를 할 예정이다.

◆ 법조인 전도회에서는 매주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교육관 108호실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선교위원회는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오늘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갖는다. 선교위원회 실행위원은 물론 선교에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 감사위원회는 93년도 상반기 감사를 7월 4일부터 25일까지 주일에는 II부 예배후부터 찬양예배 전까지, 수요일에는 수요일 예배후부터 오후 4시까지 선교관 404호실에서 실시한다.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기간 중 중보서를 지참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충현선교연구원에서는 연구원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7월 11일까지 등록은 교육국(교육관 103호)에서 한다.

한 시점을 마감하며

기대 이상의 응답

김 양 흡

(목사 · 22교구, 선교위원회 지도)



요즘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막상 베드로가 풀려 나오자 오히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헤르니아니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막상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도 못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한참 동안 묵상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나름대로 그 답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했었으나 그 결과가 순교로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에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될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로 하여금 순교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순교하는데 잘 전달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 당시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을 하셔서 베드로를 출옥시키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작은 부분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더 큰 것을 이루어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많은 힘을 얻었다.

인간적인 생각이 나의 믿음을 더욱 더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기도하자는데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굳은 결심은 나의 작은 믿음에 힘을 더해주는 소망이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혼자 힘으로는 안될 것이니 기도에 앞장서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모임이 움직여지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려는 나의 마음을 권사님들의 큰 믿음이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우리의 모임은 순수한 기도 모임이며, 각 6개의 지역권이 교대로 모이기 때문에 6주에 한 번씩 모이면 되는 것이고, 수요일에 전인 10시에 모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말을 들은 권사님들은 이미 있어야 할 것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기쁨을 표명하였다. 각 선교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6분의 권사님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도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결과 권사님들의 열심으로 첫 모임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250여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다. 그 동안에 선교에 동참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런 기도 모임이 없어서 안쓰러웠는데 이렇게 모이니 너무 좋다는 말들도 하였다.

선교위원회 지도를 맡은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지나간 기간을 돌이켜 보면 내가 한 일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기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참신한 프로그램, 선교 행정, 자금 관리, 선교 현지의 활발한 움직임을 위한 생각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선교인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기도 없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전쟁하는 군사가 포병의 지원도 없이 상대방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나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조직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지금껏 작은 것이었다. 얼마나 모일 것이며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갈급해 하는 성도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목자의 아픔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기대 이상으로 크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 더 큰 힘으로 다가 오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모임은 너무나도 작다. 앞으로 이 기도의 불씨가 퍼지기 시작하여 온 교회를 태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충현 교인은 누구나 선교를 위한 기도회원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자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데 함께 참여하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금 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기대 이상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기대 이상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7월 12일(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로회 임시총회설교(송동교회), 7월 13일(화) 원로목사회의(대림교회), 7월 15일(목), 16일(금) 청년부 수련회설교(충현기도원)
- 신성중 목사님 : 7월 12일(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기독교 학술 심포지움 개회예배 설교(충현교회 국제회의실), 7월 15일(목) 장로수련회 설교(동해교회), 7월 17일(토) 청년부 수련회 설교(충현기도원)
2. 온 백성이 불의를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 각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에 세우신 강사님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불들어 주시고 각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4.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기독교학술 심포지움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좋은 결과를 맺게 하소서.



맥추감사절

지난 주일(7월 4일)은 온 교회가 맥추감사절로 지키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 찬양예배 후에는 영아부에서 마련한 특별 감사의 시간을 가져 온 교우가 즐거워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